"당선시켜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집 세표 있으면 한표만 주세요"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 선거운동 화제

네거티브 지양 "전남 위해 일할 일꾼 키워달라"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후보의 솔직 담백한 이색 선거운동이 화제다.

김 후보는 전남지역 일원을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돌면서 "당선시켜 달라 하지 않겠다. 표 좀 주라"고 호소하면서 지역민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선거에 나온 후보가 당선이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 1%대의 지지율에 머무는 후보도 유권자들의 사표 예방 심리를 견제하기 위해 "초반 열세를 뒤집고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다" "초반부터 시작된 바람이 광풍이 돼 선두 후보를 날려버렸다"는 등의 약간의 허세 섞인 발언으로 당선 가능성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김 후보는 당선이 어려움을 유권자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다만,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달라는 차원에서 표를 분산시켜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실제로 유권자들을 접촉하면서 "한 집에 3표가 있으면 2표는 민주당이나 다른 후보를 주더라도 1표는 저에게 달라. 그래야 그 것을 가지고 청와대와 중앙정부에 올라가 큰 소리치며 예산과 발전사업을 따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지만 예전 처럼 1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로는 중앙에 가서 예산을 달라는 소리를 무슨 낯으로 하겠는가. 지역발전에 올인할 수 있는 힘을 달라"며 지역민에게 솔직한 심경을 쏟아놓고 있다.

그는 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 등 다른 후보들과 공존해야 지역발전의 힘이 생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누가 당선 되느냐 보다는 모두 힘을 합쳐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며 "박 후보와는 선거 이후에도 끊임없이 접촉, 전남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여당 후보로서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지역의 현안들을 일일이 챙기고 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를 무산시킨데 이어 순천정원박람회 국비 확보를 약속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 후보는 또 19일 무안·목포·영암을 잇따라 방문,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관철과 F1대회의 신속 지원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는 무안 군민에게 "무안이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암에서는 올 10월 열리는 F1대회와 관련, "국제적인 약속이자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도 이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가 19일 목포 한국제분(주) 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그는 이날 목포·무안·영암 일대 현장 방문을 통해 전남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태국 정부군이 19일 장갑차를 앞세우고 방콕 중심가에서 점거 농성 중인 반정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 투항

2개월여만에 '유혈' 종료…70여명 사망 1700여명 부상

태국 반정부 시위대 지도부가 19일 정부측의 진압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항을 선언하고 시위대 해산을 공식 선언해 시위 정국이 2개월여만에 끝났다.

태국 정부는 상원 중재하의 협상 재개안이 무산된지 하루만에 장갑차 등을 동원해 전격적인 진압작전을 펼쳐 시위대의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시위대 지도부의 투항으로 수도 방콕의 시위정국이 일단락됐지만 시위대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방 곳곳에서 벌어져 정정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 지도자인 웽 토지라칸은 시위 거점인 라차프라송 거리에 마련된 연단에서 "추가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을 떠나야 한다"며 시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시위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던 7명의 시위대 지도부는 시위 종료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정부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현장을 탈출했던 일부 지도자들은 이미 경찰에 출두, 구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은 이날 오전 6시께 시위 거점인 라차프라송 거리로 이어지는 룸피니 공원 등에 수십여대의 장갑차와 병력 등을 집결시킨 뒤 곧바로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했다.

군경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시위대가 설치해 놓은 폐타이어와 바리케이드 등을 철거하고 라차프라송 거리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장악한뒤 시위대를 향해 '투항하지 않으면 사살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내보내면서 시위대에 자진 해산을 종용했다.

강제해산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군경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시위참가자 4명과 이탈리아 기자 1명 등 5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경과 시위대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는 지난 3월14일부터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방콕 시내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 기간 군경과 시위대가 여러 차례 충돌해 70여명이 숨지고 1700여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누구도 부인 못할 물증 제시될 것"

日 총리와 천안함 발표 관련 통화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내일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물증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20분간 이뤄진 하토야마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거듭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특히 국제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벌여온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가 지난 4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직접 애도의 뜻을 전한데 이어 이번에도 전화를 걸어 조의를 표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처리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국제공조를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태국 민주주의 학살 중단…평화 해결책 모색하라"

광주 아시아포럼 참가자 '긴급 성명서' 채택

광주 아시아포럼 참가자 300여명은 19일 태국의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채택했다.

5·18 광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로 19~2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지는 이번 행사에는 기조연설자인 이희호 여사, 2010 광주인권상 수상자 수실 퍄큐렐씨, 80년 당시 항쟁을 목격하고 증언한 데이비드 돌린져씨 등이 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태국 정부는 민주주의를 위해 학살을 멈추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태국에 있는 '붉은 셔츠'로 불리는 반독재민주연합전선(UDD)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면서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투쟁은 지난 3월 시위에서 절정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남북한 긴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취해왔던 (대북)정책을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면서 "북한도 6자회담에 복귀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평화를 이룩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6자회담을 발전시켜 동북아평화안보협력기구와 동아시아공동체 설립 등의 '동아시아 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양수현 yang@kwangju.co.kr